





티 없는 표준화를 추진하되 차세대 규격의 사전준비 및 진화방안을 검토하여 국내의 주택조건 및 통신망 환경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광대역통합네트워크(BcN) 구축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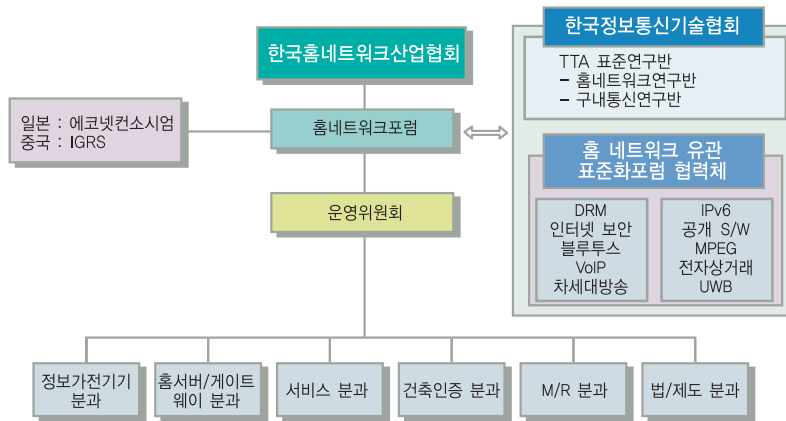
### 3. 홈네트워크 포럼 구성 및 표준화 추진방향

홈네트워크 산업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첨예한 표준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기업 및 국가간의 치열한 표준 경쟁은 총성없는 전쟁으로 비유되고 있다. 특히, WTO의 기술장벽협정(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각국이 국제 표준을 의무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MS, 인텔, 모토롤라, IBM, 소니 등 외국의 선진 기관은 수 년 전부터 표준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만이 시장을 독점한다는 "Winner Takes All" 원칙을 인식하고 표준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표준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표준 제품은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조기에 대규모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특성을 반영한 표준 채택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산업 잠식을 일정기간 저지할 수 있어 표준화의 중요성은 국가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연구소 및 산업체 모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홈네트워크 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 3월 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그림>과 같이 홈네트워크 포럼을 재정비하여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홈네트워크 포럼 조직도

홈네트워크 포럼은 통신·방송 융합화에 따른 디지털 컨버전스로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 관련 기기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홈네트워크 국내 규격의 조기 표준화 및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UPnP(Universal Plug and Play) 등 국제 표준 기고를 통한 IPR 확보를 목표로 홈네트워크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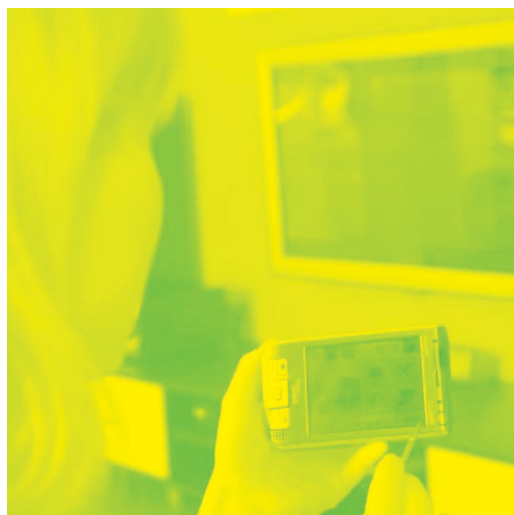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 및 콘텐츠, 원격 서비스 분배관리 프레임워크 및 융합형 서비스 플랫폼 등 서비스분야, 게이트웨이 원격관리,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과금 및 빌링, 이질적인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간 연동 모델 등 기기분야, 유무선 복합 홈서버 설치 위치, 배관·매입함 등의 설치 등을 홈네트워크 각 분야별로 단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법제도와 연계성, 기술의 파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

택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홈네트워크 포럼의 거시적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 모두가 가정에서 다양한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추진
- 표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통한 홈네트워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통신, 정보가전, 콘텐츠 등 IT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IT 정보강국 도약 및 미래 신성장 핵심 엔진으로서 홈네트워크 산업을 부상

그리고 홈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국내 주거환경 분석 및 산·학·연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홈네트워크 보안문제 해결, 개방형 기술표준에 기반을 둔 국제표준화 선도를 목표로 한다. 〈표〉는 홈네트워크 포럼의 분과위원별로 중점 표준화 분야 및 범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분과위원회별 중점 추진 업무

분과	중점 추진업무
MR 분과	- 홈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BM) 발굴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조사, 검토
서비스 분과	- 홈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환경 표준화 - 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 및 솔루션에 대한 표준화 - 고품질 맞춤형 홈 디지털 서비스 제공방안 수립
정보가전 기기분과	- 디지털 홈 기기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통합 미들웨어 및 무선 홈네트워크 중심의 표준화 - 가정 내 디지털 홈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전기와 통신기기의 인터페이스 규격 및 상호 호환성 연구 - 홈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우선적으로 표준화
홈서버/게이트웨이 분과	- 다양한 디지털 홈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게이트웨이/홈서버/셋톱박스 규격 및 상호운용성 표준화 연구
건축 및 인증 분과	- 건축, 구내배선, 리모델링 등 디지털 홈 구조 표준화 - 유무선 홈네트워크 건축 인프라 표준화
법/제도 분과	† 홈 디지털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위에서 설명한 표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포럼 참여 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국내외 표준화 기구에 기고를 추진하며, 홈네트워크 보안모델 표준화는 홈네트워크 시큐리티포럼과 같은 보안전문 포럼과 협력하여 추진하며, IPv6, DRM(Digital Right Manaement) 등 TTA의 홈네트워크 유관 포럼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2006년 5월 30일에 발족한 아시아 홈네트워크 협의회를 통한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TTA**

